

불심시심 (2)

가을산 일은 절로 붉다

大朴無形一大空  
대박무형일대공  
無聲無臭無有無  
무성무취무유무  
春風何處無花發  
춘풍허처무화발  
霜滿秋山獨自紅  
霜滿秋山獨自紅  
상채추산독자홍

큰 박은 형상을 떠난 하나의 큰 허공  
소리도 냄새도 없이, 있고 없음의 저쪽  
봄바람에는 어느 곳이나 꽃을 데 없으나  
가을 산 서리 내리면 일은 자절로 붉다

어느 속사가 선사적 여유였다. "천당이나 지옥이 있느냐" "있다"고 대답하자, 속사가 다시 말하기를 "다른 스님은 없다 합디다"했다. 그 선사는 불기를 "나는 처자가 있느냐" "있습디다" 하니 선사가 다시 묻되 "아까 그 스님이 처자가 있느냐" 하니 "없디다"했다. 선사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천당 지옥이 없다 해야 하지 않느냐" 했었다는 것이다.

위 시는 이 사실에 대해 再梅선사가 읊은 시이다. 천당이나 지옥이 없다는 것이 그 처지에서 있고 없음이지 처지가 다르면 지옥이 천당이고 천당이 지옥일 수도 있다. 처자식이 없는 스님의 처지가 세속의 가족적 결박의 속인과 같을 수 없으나, '있다'의 대 그 무한의 거대한을 인식한 셈이다. 여기서 말한 큰박은 이 우주 내지는 지구의 깨달음을 말한 것이다. 형상이 없다는 말 자체가 너무 관대 무뎠기에 형상지를 수 있는 표현을

초월한 것이다. 그것을 허공이라 할 수도 있겠다. 불가에서 우주를 33천이라 했던 예자를 짐작할 만하다. 여기에서 소리나 냄새나, 있거나 없거나나 함은 그 존재의 실체와는 아무 의미 없는 군말이다. 그렇지만 불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잎이 지는 것이 또한 지구 존재의 실체이다. 피어 있는 꽃에서 단풍을 의식하지 못함은 꽃 그 자체에 집착된 매달림이다. 천당이나 지옥이 없다는 것이 그 처지에서 있고 없음이지 처지가 다르면 지옥이 천당이고 천당이 지옥일 수도 있다. 처자식이 없는 스님의 처지가 세속의 가족적 결박의 속인과 같을 수 없으나, '있다'의 대 그 무한의 거대한을 인식한 셈이다. 여기서 말한 큰박은 이 우주 내지는 지구의 깨달음을 말한 것이다. 형상이 없다는 말 자체가 너무 관대 무뎠기에 형상지를 수 있는 표현을

이충찬 (한국대학교)

불교정서 담은 조각품 발표

전퇴진교수 정년기념전

현대조각의 거장 홍익재 전퇴진교수 정년기념전이 지난날 25일부터 5일까지 관훈동 선화당(734-0458)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의 향기가 번 정통정서를 형상화 한 구상조각품 13점이 전시됐다. 이 작품들은 하나하나 정으로 조야 다듬은 표현의 완만함과 부드러운 속에 불상과 전통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퇴진교수의 근작 중심으로 전시된 이번 기념전은 그의 제작경험, 한결같은 유공과 고집수, 강건육체 등의 작품이 한 조 출품된다.

안중근의사 친필전시  
자비의집 기금전

최근 안중근의사의 마지막 친필유묵으로 알려진 '경천(敬天)'을 주제로 하여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주최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세원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경천'을 비롯 김

전남 장흥군이 보림사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돼 국고 지원을 요망하고 있다. 관계자는 복원이 시급하나, 8건의 불사에 필요한 14억 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복원불사 예산부족  
장흥 보림사

혜손은 급속

원각사지 10층석탑

관리는 저속

공해·산성비에 인위적 마모까지 "불자가 지켜야" 여론

종로3가 탑골공원의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2호)이 날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원각사 복원추진회(대표·정정수)는 지난 25일 탑골공원 원각사지 10층석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측이 탑의 철저한 관리책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각사지 10층석탑의 훼손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고개나 정부측 모두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복원추진회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훼손과 관련 문화재관리국 서울시 등에 계속적인 대책수립 건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정수씨는 "해당기관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 빠른 대책을 요청했으나 문화재 관리국과 서울시 종로구청등이 서로 미루기만 했다"고 밝혔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훼손은 빗물에 의한 산화와 비둘기 등의 오물에 의한 부식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구나 최근에는 탑의 2층부분 화염회상 조각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관련 정정수씨는 "정부측의 철저한 관리의지가 보이지 않으니 자연적 훼손에다 인위적인 훼손까지 겹쳐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 인위적인 훼손은 이교도에 의한 것이란게 목격자의 증언이다.

원각사지 10층석탑의 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자 문화재 관리국은 92년에 실측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실측조사 이후에 관리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정수씨는 또 "본인이 지난 91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관청에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시켰으나 문화재관리국·서울시 등이 매우 피상적이고 실효성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각을

25일 기자회견에 이어 26일 아침 조선일보, 동아일보등이 탑의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일제히 기사로 다루자 문화재관리국은 당국은 26일 오전 현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문화재관리국의 실측 보고서에서 제시된 탑외곽 전각 설치와 관련, "반대의견도 있는 처지여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 못했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각을

세울 경우 통풍의 차단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탑의 훼손이 보도되자 일부 불자들은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 불교계가 앞장서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원각사지 복원추진회는 탑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탑골공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탑 보호자를 짓는다 △관객 기관에서 24시간 지킨다는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입장료 수수료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보호자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각사지 10층석탑은 1069년 고려 문종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각층마다 상재불화, 화엄화, 소재화, 원통화 등 다양한 회상도가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탑으로 1946년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임연태 기자)



◇가사호접의 한 장면

'가사호접'등 불교춤 서울 무용제 장식

10월21일부터 11월8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서울무용제에 불교춤 작품이 여러 편 출품돼 시선을 끌고있다.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은 29~30일 무대에 올린 '바람개비의 꿈, 스님 무용가 자은스님(하와이 불은사주지)이 특별출연한 이 작품은 인간의 욕망을 날 수 없는 바람개비에 비유하고 있다. 자은스님은 공연을 마치고 바로 출국했다. 스님은 이에 앞서 23일 LA에서 이백극장에서 문동충 '반뇌'를 공연하고 귀국했다. 첫날 공연된 '가사호접'은 승려의 가사가 호접과 같이 나누어진다는 뜻으로 환속한 스님의 고뇌를 그린 명

작무(93년 지정)다.故 조태익씨의 춤을 김문숙씨가 승계했다.

불교를 호호하고 연결시킨 '반뇌'는 자기를 비유하는 가르침을 담

은 정옥조 무용단의 작품. 11월4~5일 공연된다.

23일 무대를 장식한 '무상'은 존재의 의미를 강조한 춤으로 허무까지 수용할 때 존재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식과 꽃무늬들이 잠엄하고 정교하게 표현돼 있어 세부 특징이나 형태를 볼 때 청량 장쾌사 마태극본도와 비교되는 당대의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는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승나라 중화(仲希)가 법장(法藏)의 반야심경약소에 자신의 한 정기(精記)를 붙인 것이다.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 아니라 교정인이 찍혀있고 서울대 소장본인 보물 제771호에 비해 전(全)이 더 들어있어 불교문화사 및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문화재로 인정되고 있다.

윤회 주제작 선별  
박병희 조각전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고려불화 복원 기금마련 서화전

월하·석정스님등 작품 내보... 민자불교신도회

민자자유당 불교신도회(회장·곽정출)는 94년 3대대표사업의 하나인 고려불화 복원사업을 위한 '기금마련 고승서화전'을 지난 26일부터 1일까지 관훈동 백성갤러리 지하층에서 가졌다.

이번 서화전에는 조계종 월하종정의 글씨와 인간문화재 제48호 석정스님의 불화, 회화고 부처님 진신사리와 언해원각경 즉 한글원각경이 보장된 탑종의 보람이다. 탑국의 관리 개선에 앞서 기도하는 불자가 원각사 보탑을 쓰고 돌린 원각사 보탑의 영인화 보존은 물론 사회인정 불교부흥 남북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17일자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량산괘불탱(淸凉山掛佛幀)',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식성군 이운룡선무공신교사(愍城君 李雲龍 眞無公眞信交師)'의 관계문서, 3건을 보물 제1210호, 1211호, 1212호로 각각 지정했다.

청량산괘불탱은 거대한 보살 입상이 화려 곱게 그려진 괘불로 화려한 보관에 붉은색과 녹색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천의(天衣)를 걸치고 있다.

영조 1년(1725)에 제작된 이 보물은 근엄한 얼굴에 엄격한

점의 고려불화중 확인된 30여 점만의 고려불화를 똑같이 복원(모사)하여 보존키 위한 것이다.

고려불화는 본존불과 협사불이 상하단을 이루는 구조가 조선불화과 틀려 학계의 관심을 모

은뿐만 아니라 색깔의 사용이 중간색을 쓰면서도 금색을 많이 사용해 호화찬란함을 보여줘 외국의 미술애호가들 또한 상당수의 고려불화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17일자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량산괘불탱(淸凉山掛佛幀)',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식성군 이운룡선무공신교사(愍城君 李雲龍 眞無公眞信交師)'의 관계문서, 3건을 보물 제1210호, 1211호, 1212호로 각각 지정했다.

청량산괘불탱은 거대한 보살 입상이 화려 곱게 그려진 괘불로 화려한 보관에 붉은색과 녹색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천의(天衣)를 걸치고 있다.

영조 1년(1725)에 제작된 이 보물은 근엄한 얼굴에 엄격한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인연이나 운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 찾는 박병희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에서 지난 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현장에서

"무관심이 정보 망친다"

국이 공동시행한 정밀실측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이다. 92년6월이전 파손된 부분은 화엄회 석가모니불·미타회의 사천왕상·응화회의 사천왕상과 유족불상의 일부뿐이다. 조사서에 의하면 이부분들은 약5백여년간의 풍화작용 특히 산성비, 풍토를 지나는 자동차연, 새들의 배설물등으로 석조각의 표피가 산성화 되면서 자연훼손과 마모, 다스간의 인위적 충격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벌을 받았고 탑을 오르고 내려갈 구두에 의해 탑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렇듯 상식이 없는 한 시민이 저지른 실수가 우리의 불탑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실례이다. 관리소의 속직 2명이 약5천원을 받으며 관리할 수 있을까. 실제 본인은 지난 3월 덕화산 산사에서 내려와 원각사탑의 경우 또는 수호할 수 있는 참지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 7개월간 매일 아침 마당을 돌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고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 탑인 2200년전의 아소카대왕 건립의 산지대상이나 세계 7대 불가사의이며 유엔에 의해 이슬람교도국가 속에서 보존되고 있는 보루부울 대탑에 비해 손색없는 보탑이라는 사실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탑과 양식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 중심에 오면서 모토풍탑의 정통을 모으고 정단되고 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지정경 한성군이 술을 먹고 전당서상회에 꽃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

**불교를 향한 첫걸음을 달게 하는 불교교리 입문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바다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수 있을까? 이것이 이책의 화두이다.

이 순간, 어떻게 부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들에게 불교의 고리를 어떻게 설명하시고 지도하실까? 불교는 인생에 대한 고뇌에서 출발했으며, 또 그것에 대한 풀음이며, 괴로움을 해결해가는 길을 찾는 과정이며, 삶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불교를 찾아가는 길>은 바로 이런 내용을 불교의 기본 고리와 연결지었다. 불교의 진 문명을 일방적인 용어로 쉽게 해석하여 누구나 쉽게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의 현실 문제를 불교 교리로 해결하는 지혜로 설명하면서 경전속에 나오는 직 접한 비유와 상징을 들어 이해를 돕고있다.

신원/252원/갈 4,800원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

정의행 기증

우리 불교를 바르게 발전시킨 선지식의 삶과 사상

민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동대대(同大) 보살의 길을 걸었던 선지식의 불교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

수많은 불교역사인물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단지 그 업적을 거론하고서 할 수 없다. 우리 한국 불교를 풀이해 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여 불교를 바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역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는 유명한 고승을 위주로 쓰여진 종래의 인물사나 월간과는 달리 불교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거나 민중의 복리를 위해 헌신했으면서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식들의 삶을 그려고 있다.

마음이 오연세발동안 외국 평가되어온 인물들에 대해서